

호주 불교 산실, 시드니 정법사 창건 20년 맞아



시드니 정법사는 창건 20주년의 맞이해 3월 30-31일 경내에서 봉화 축사사 문수원장 무어 스님 초청 법회 등 특별 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제공=월간 맑은소리 맑은나라 발행인 김윤희

불교 불모지였던 호주에서 부처님법을 펼쳐 온 시드니 정법사가 창건 20주년을 맞았다.

시드니 정법사(호주 기후)는 3월 31일 봉화 축사사 문수원장 무어 스님 초청 창건20주년 특별법회를 개최했다. 특별법회에는 前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구미 남화사 주지 성화 스님, 문경 운암사 주지 범초 스님, 前정법사 주지 혜산 스님 등 500여 대중이 참여했다.

무어 스님은 이날 법문을 통해 “수행이 지극하면 화장세계가 열린다. 불교 수행은 웰빙과 웰다임의 중심”이라고 말했다.

기후 스님은 “어렵고 힘든 시절 마음을 모아 준 신실한 신도님들이 있어 이 길을 여여하게 걸어 나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성숙된 수행자의 모습으로 교민사회의 불자님들과 함께 하는 부처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이날 법회에서는 기념 식수 행사와 3층

사리탑 봉안식과 미륵반가사유상 봉안식, 불사 공덕비 제막식도 함께 거행됐다.

이에 앞선 30일에는 호주 한인회관에서 前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초청 법회가 진행됐다. 이날 정우 스님은 “어떻게 살면 행복해 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법문을 했다.

정우 스님은 “긍정적인 삶을 살면 행복을 꽃 피우고 부정적인 삶을 살면 불행의 씨앗이 발아된다”며 “관심과 배려, 진정한 어울림의 삶을 살고 계신 기후 스님의 수행자로서의 ‘행’이 정법사를 세우게 된 근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시드니 정법사는 1991년부터 호주 포교에 나섰던 기후 스님이 운명이 어려웠던 불광사와 달마사를 1993년 3월 통합하면서 탄생했다. 창건 초 한 동안 불교였던 법당은 현재 네 동으로 확대됐으며 200세대 이상의 신도들이 찾고 있다.

노덕현 기자

맑고향기롭게 독거노인 돕는 캠페인

11월까지 진행, 19일에는 장학금 전달식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가 독거노인의 경제적 빈곤 해소를 위한 ‘아름다운 마무리’ 캠페인을 펼친다. 이에 맑고 향기롭게는 4월 13일 한성대입구 지하철역 입구 및 서울 도심·성북동 길상사 등에서 홍보활동을 시작한다.

11월까지 진행되는 이 캠페인에 대해 맑고향기롭게는 “사회복지기금을 조성으로 노인자살의 주요 원인인 경제적 빈곤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또한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범정 스님의 청빈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또한 맑고 향기롭게는 매월 발간되는 소식지에 후원을 기다리는 독거노인의 사연을 소개하고, 월 2회 거리 홍보를 전개한다. 조성된 기금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

위계층 독거노인의 생계비 지원을 위한 결연 후원, 의료비 및 난방비 지원에 사용된다.

한편 맑고 향기롭게는 4월 19일 길상사 설법전에서 ‘2013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을 선정하고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맑고 향기롭게는 길상사를 무주상보시한 김영환(길상화 보살)님의 뜻을 기리는 의미로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1994년부터 20년째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13년까지 총 483명의 학생에게 약 6억 6천만원의 지원해 왔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에는 33명이 선정돼 1년간 학비를 지원 받게 된다. (02)741-4696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신명나는 연등회가 기다려집니다

불교계, 부처님오신날 맞이 준비 한창

4월이 되며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기 위해 전국의 사찰과 불교단체마다 다양한 봉축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연등회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연등회를 앞두고 각종 문화행사 준비가 한창이다.

연등회보존위원회는 최근 연등회 참가단체들과 3차례 준비모임을 갖고 전통 등 문화 계승, 사찰방문 외국인 안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등회보존위원회는 올해부터 대한불교청년회와 협약을 맺고 한국 거주 외국인 청년과 한국 청년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구성했다. 또 4월 28일 동국대에서 국제포교사회의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레크리에이션 등 봉축연희단체들이 참가하는 최종리허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등회에서는 젊은 세대 취향에 맞춘 잔불가와 율동이 대중에 공개된다. 좋은벗풍경소리(총재 지현)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먼저 판권현준 등 젊은 예술인들이 참여한 잔불가 음반 풍경소리 7집을 발표했다. 2012년 9월부터 제작에 들어간 풍경소리 7집에는 가수 김현성과 움직이는 꽃 등이 참여해 아이 러브 붓다, 연등 들고 춤을 등 잔불가 8곡을 담았다. 이종만 좋은벗풍경소리 실장은 “올해 음반은 현대화된 국악 등 풍경을 넘어 국민적 축제로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성을 갖추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사회 소외계층을 돌보는 행사 준비도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4월 27일 난치병 어린이 돕기 3000배를 전국사찰에서 진행한다. 장애아동 보호시설인 승가원은 장애아동 돕기 위한 자비연등 모연하고



봉축준비가 한창인 불교계 곳곳의 모습. 위로부터 시계방향으로 조계사 연등 다는 모습, 안양한마음선원 풍물패 연습 장면, 한마음선원 청년회 율동연습 장면, 봉은사 연희단 연희한마당 모습



풍경소리... 판권현준 참여한 음반내 조계종복지재단... 3000배 정진 활동 보리수아래... 장애불자 음악회 도선사... 인사동서 거리 탁발

불교문화 마당에서 장애체험 부스를 마련해 장애인식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장애인복지모임인 보리수아래(회장 최명숙)도 5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니르바나오케스트라와 함께 장애불자들이 함께하는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장애인 불자예술

인과 비장애 예술인들이 함께 하는 시낭송 등 의미 깊은 행사도 진행된다.

도선사(주지 혜자)는 5월 8일 독거어르신 돕기 노인잔치를 여는 한편 5월 중으로 인사동 일대에서 거리탁발을 진행해 모연금으로 독거어르신 및 난치병 어린이를 도울 예정이다.

연등축제 준비의 꽃은 바로 연희단과 화려한 연등. 매년 등경연대회를 임상하고 있는 한마음선원은 제등행렬을 앞두고 5월 5일 안양 한마음선원 불교문화회관에서 화합제 및 잠업등 점등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선원 학생회들의 연희 무용 공연 등도 진행된다.

매년 대규모 연희단을 구성하고 있는 봉

은사(주지 진화)도 봉축 율동 등 연습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봉은사에는 연희단, 율동단과 함께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는 북장엄단이 있다. 북장엄단 단원은 70여 명으로 매주 주말마다 2시간 씩 맹훈련 중이다. 봉은사는 5월 5일 봉은 연희한마당을 열고 봉축연희단을 최종 점검한다.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사찰들과 동국대 불교학과 등은 연등공방을 사내에 설치하고 연등제작에 한창이다. 특히 조계사는 4월 17일 연등 등에 색을 칠하는 염색축제 ‘물뿜’과 20일 신도축제 ‘와학’을 열고 부처님오신날 참여열기를 고조시킬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역대 최대인원 참가 동국인 등산대회

4월 12일 서울 북한산에서 열려

매년 열리고 있는 4·19혁명 기념 동국인 등산대회에 역대 최대인원이 참가했다.

동국대(총장 김희옥)는 4월 12일 서울 북한산에서 교수·직원·학생 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4·19혁명 기념 동국인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44회째를 맞는 ‘4·19혁명 기념 동국인 등산대회’는 1960년 4·19 혁명에 참가한 동국대 학생들을 기리기 위해 1970년부터 시작됐다.

등산대회는 서울 수유동 4·19혁명 기



동국대 학생과 임직원 3000여명은 4·19혁명 기념 동국인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념탑에서 추모식을 마친 후 학과와 단체별로 등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크레파스로 부처님 그리고 신심 키우자

목야박물관, 부처님 그리기 대회 개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처님 그리기 대회가 열린다.

목야박물관(관장 박찬수)은 ‘제19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문화관광체육부와 조계종 봉축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맑은 마음, 밝은 세상, 향기로운 어린이’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만5세 이상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그림은 크레파스, 수채화, 판화 중 자유롭게 선택해

4월 25일까지 목야박물관으로 우편접수하거나 방문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 내 방문해 그리는 것도 가능하다.

목야박물관은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상과 기념품을 증정하고 장관상인 ‘우뚝 으뜸상’에는 300만원 상당의 부상을 제공하는 등 입선작에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수상작 100점을 선정해 한·중·일 어린이 그림 그리기대회에 출품한다. (031)885-9952

이아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 복지재단 SOCIAL WELFARE CORPORATION W.F.B.W.F

전국지부 및 회원 모집 안내

설립취지서



이사장 윤기순

· 이 법인은 사회복지 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한다. 이 법인은 고령화사회 마스터플랜을 통해 건강한 노후 활기찬 안전생활 생산적 노년 편리한 환경에서 능동적인 고령 친화 사회구현을 위해 노인의 욕구와 특성에 기초한 생활 밀착형 안전망을 실제적으로 구축해 나이가 들어도 더욱 건강하고 환희심에서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 특히 지방법계 제방 불교인들이 일불제자로서 조화와 대통합을 통해 세계일화로 범종단의 화합을 성취하여 원력이 있는 곳에 부처님의 가피가 있는 신행을 창조하는 경토세계를 구현 에토세계의 고등중생에게 무량공덕과 자비봉사의 대원력과 행원을 사회속에 회향시켜 진정한 불교적 상구보리 하화 중생의 가치를 계몽하는 불교 복지문화 마케팅 패러다임을 구축 우리모두가 따뜻한 마음과 어루만지는 손길을 다함께 보태 노인 적합한 사회환경을 제도적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 이와 함께 이 법인은 예비 노인들의 노후대비 정신향양 훈련교육을 실시하고 고령화 사회 마스터플랜의 효율적인 단계별 성과관리 방식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다양 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관리 시스템을 강화 맞춤형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노인 사회복지의 서비스 향상과 노인의 고소득 고용 지원 등을 통해 노인 행복추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경로효친과 인보상조의 미풍양속을 발전시켜 노인을 경애하고 봉양하며 노인들이 의식주에서 충족하고 안락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자 한다.

· 노인무료급식 및 목욕서비스 지원사업, 노인의 날 효행잔치 지원사업 저소득층노인 긴급구조, 난방비, 김장김치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실현가능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 불교종단은 복지문화의 든든한 후원자이며 또한 불교종단은 복지의 전략적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며 무소득, 무소임 승려를 대상으로 의료비, 요양비, 수행연금, 수행거주를 지원하고 우리나라 불교 종단들도 복지문화에 대한 관심과 후원이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부합하여 포교 및 전법활동에도 효과적이라는 인식 확산과 복지문화에 적극 동참하면 사회인과 소통하고 불교의 사회국제 성과를 높일뿐만 아니라 불교문화 발전과 복지 나눔에도 기여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 복지재단

이사장 윤기순 회장 각운 무산 총재 경담 각성 대외협력위원장 성대 무궁

사무처 : 서울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412호, 317호, 338호) 전화 : 02)2198-5022~4 / 팩스 : 02)2198-5025 / H.P 010-4167-3666

모 집 부 분		
구분	내 용	비 고
종 단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있는 종단, 단체는 회원지부 종단으로 등록가능	등록비 무료
사 암	각 사암에서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있는 사찰은 회원사찰로 입회하여 사회복지관련 정보 제공	사찰가입비 무료
회 원	일반불자로서 평소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있는 모든 분에게 사회복지관련 정보제공 및 봉사체험시설안내	회원가입비 무료



본 복지재단은 미얀마 현지를 방문하여 한국을 넘어 해외까지 승려를 대상으로 의료비, 요양비, 수행연금, 수행거주를 지원하고 무소임 승려를 대상으로 복지혜택문화에 대한 새로운 차원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본 복지재단은 승려복지문화의 든든한 후원자이며 종교적 사회적 책임과 불교문화 발전과 복지 나눔에 기여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